‘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뚜렷

소비자 10명 중 8명 농식품 구매에 사용… 코로나19 때보다 늘어

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식품 소비 진작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먹거리 소비’에 더 많이 사용된 특징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먹거리 구매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약 60.0%)보다 20.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과채류(70.7%)와 육류(66.4%) 소비를 늘린다는 답변이 많았다.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릴 예정인 소비자 중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겠다고 꼽은 과일은 복숭아(38.1%)였다. 이어 수박(22.1%), 사과(18.3%), 포도(13.0%)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육류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에서는 한우(40.2%)를 가장 큰 소비 증가 품목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돼지고기(34.3%), 수입 쇠고기(11.6%)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한우, 60대 이상은 돼지고기를 선호했다.

마찬가지로 곡물류는 쌀(42.0%), 콩류(31.2%), 옥수수(12.6%) 순으로 소비가 늘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류는 오이(21.0%), 상추(14.0%), 배추(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51.4%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이라고 피력했다. ‘불편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은 30.4%, ‘상관없다’라는 의견은 4.1%에 달해 소비쿠폰에 대한 정책 수용도가 85.9%로 높았다.

반면,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다. 60대 이상(33.3%) 연령대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살아난 것 같다”며 “소비 회복과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농식품 홍보, 판촉 지원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을 9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장·설비 제어 및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총 15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모집공고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MES, FEMS, QMS 등 ICT 연계 제조 현장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과 설비 제어 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의 제조 현장 혁신 멘토링과 제조혁신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식품제조업계의 생산공정 자동화, 식품안전·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가속화되면, 급성장하고 있는 K푸드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8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에 기여해왔다. /오상근 기자

완주군, ‘2025 통상닥터’ 가동… 중소중견기업 수출길 넓힌다

‘제조업 강군’ 완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

완주군(군수 유희태)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 완주군 통상닥터’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며, 수출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 전문 컨설턴트인 통상닥터가 직접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어 발굴·시장 조사·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완주군은 자동차 부품, 기계·소재, 식품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전북의 대표 산업거점이다. 완주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2024년 완주군의 수출액은 12억 7,200만 달러로 전북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이 중 대기업이 65.9%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22.2%, 11.1%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완주군은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군 통상닥터’ 사업은 통상 전문가인 통상닥터를 기업과 1:1로 매칭해 전과정에 걸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수출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제품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제안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연계 등을 지원하며,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해 통관, 계약, 결제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닥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제품개선, 시제품·디자인 개발, 현지 바이어 초청 등이 필요한 기업에는 ‘수출기반 구축지원사업’을 연계해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과정을 끊김없이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경진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수출 다변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였던 수출 구조를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중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기존 수출을 한 단계 확장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진원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관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1일부터 29일까지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잔액 5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우편 또는 전화 안내를 실시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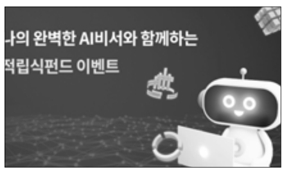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 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나의 완벽한 AI비서와 적립식펀드 이벤트’

전은, 응모 조건 따라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 추첨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1일 똑똑한 AI투자, ‘나의 완벽한 AI비서와 함께 하는 적립식펀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은행 앱 JB쏙뱅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기반으로 AI가 펀드 상품 2~4개로 포트폴리오 추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AI추천포트폴리오’와 ‘AI투자챌린지’ 등 2종이 있다. ‘AI추천포트폴리오’는 고객 투자성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AI투자챌린지’는 목표금액과 기간을 반영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AI추천포트폴리오’ 또는 ‘AI투자챌린지’를 30만원 이상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자동이체(30만원) 설정 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과 배달의 민족 상품권 5만원,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자동이체(10만원) 설정 시에는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에 자동응모 되며 12월 중 추첨을 통해 지급 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금융상품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앱 JB쏙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정기회의 개최

전북 수소특화단지 공모 대응 전략 논의 · 전문가 의견 수렴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대회의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수소 분과 2025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수소 분과 위원 및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해 전북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군과 함께 ‘전북 완주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특화단지의 비전, 사업내용, 육성방향 등이 공유되었다. 전북 완주 수소특화단지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화단지 지정의 핵심 평가 항목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확보, 지역 산업 연계성, 산업생태계 구축 기여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되었으며, 참여 위원들은 지역 여건과 산업 강점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수소 분과의 상반기 운영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수소 분과는 △생에너지 활용 CCU 구축 및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수소전주기 AI기반 통합관리 실증, △에너지자원순환도시(ERCC) 구축에 관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기획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수소 분과 포럼’ 개최 계획도 함께 소개되었다. 해당 포럼은 오는 9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리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 연료전지, 수전해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수소 분과 위원들이 박람회 개막식 및 분과 포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되었으며, 전시관 부스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행사도 함께 추진된다. /오상근 기자